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구약 1

글 김순희
조은옥



이 동화책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12월 15일

발해인 : 이동재 / 김순희

글 : 김순희 / 조은옥

전체편집 : 이리브가

그림 : 이리브가 김하나

번역 : 이현주 / 이해니 / 조하은 / 조에녹

/ Cao Phuong Chi / Ren Jiayi / Gautam Upendra

부록 제작 : 나은영 / 이해니

워십 : 강지인 / 이해니

찬양 : 백하은 / 최예나 / 이덕근 / 이리브가

후원: 김숙희 / 신에스더

이야기 목차

1. 이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1
2. 아담과 하와 9
3. 핑계 또 핑계 17
4. 가인과 아벨 25
5.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33
6. 홍수와 무지개 41
7. 바벨탑 49
8. 복의 근원이 된 아브람 57
9. 아브람의 새 이름 아브라함 65
10.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73
11.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81
12.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89
13.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97
14.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105
15. 야곱이 받은 축복 113
16. 야곱이 베엘에서 만난 하나님 121
17.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안에 거하다 129

1.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창세기 1:1~2:3)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때에는 밤보다 더 캄캄해서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무엇이 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물 위에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빛이 나타나서 환해 졌어요.

“음!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은 ‘낮’,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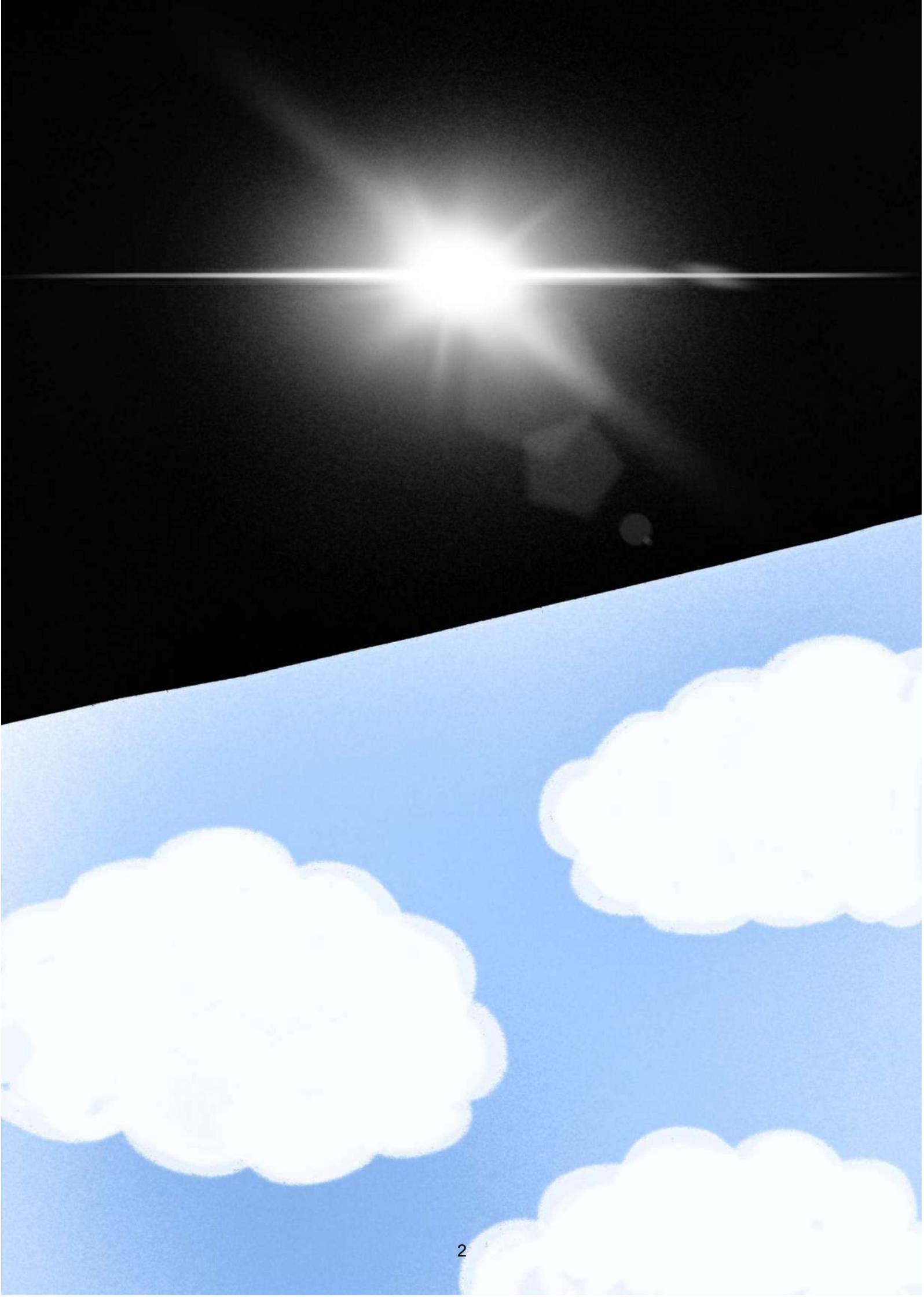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물 가운데 크고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뉘어졌어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었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그대로 되었어요.

“물을 ‘땅’, 물은 ‘바다’라고 부르겠어.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별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셋째 날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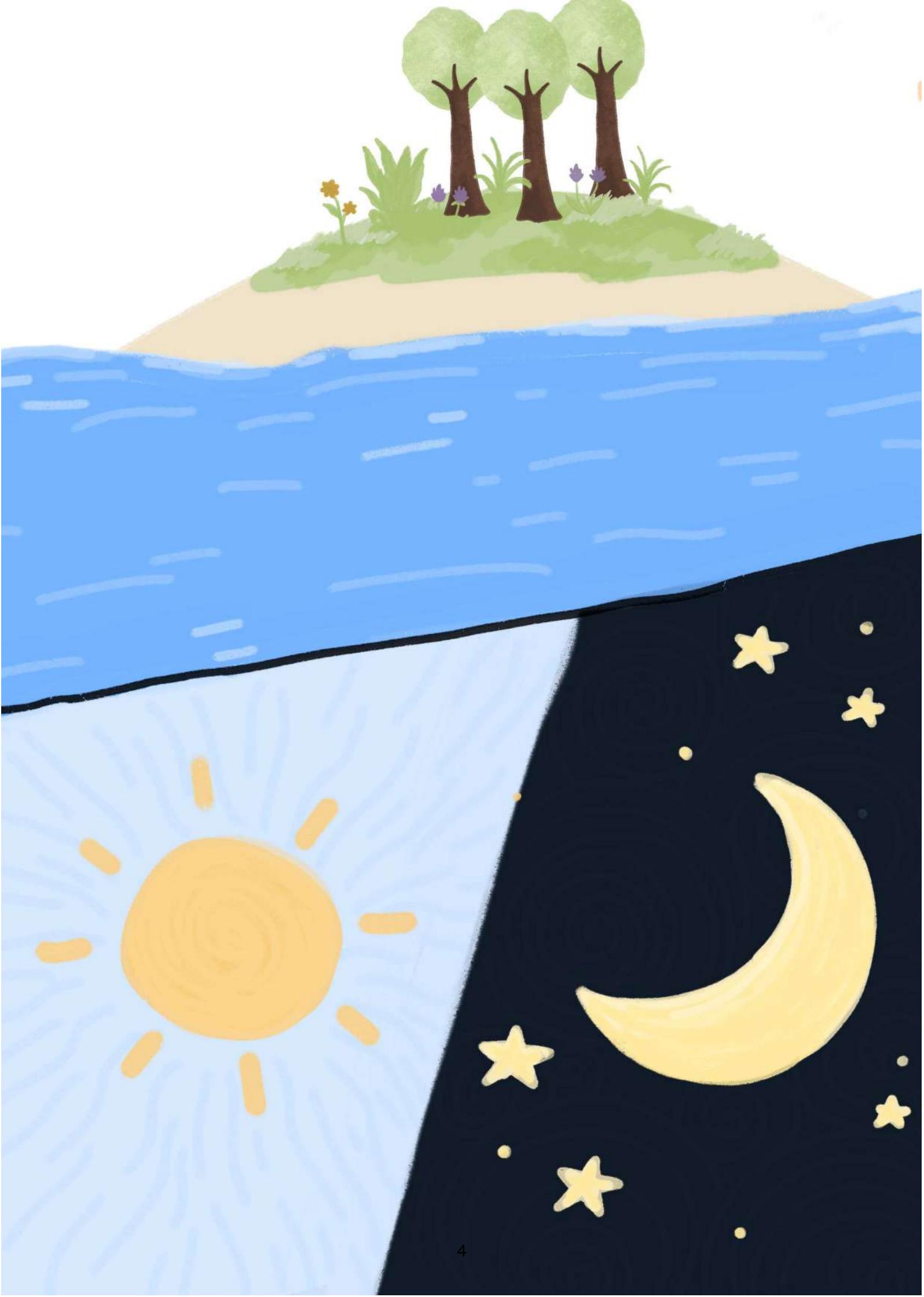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눠게 하라.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라. 광명체들은 땅을 비추라!”

하나님은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지배하게 하시고 별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낮엔 해가 밤엔 달과 별이 땅을 비추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었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크는 갖가지 동물들과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동물들은 잘 자라서 바다를 채우고 새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어요.

“땅은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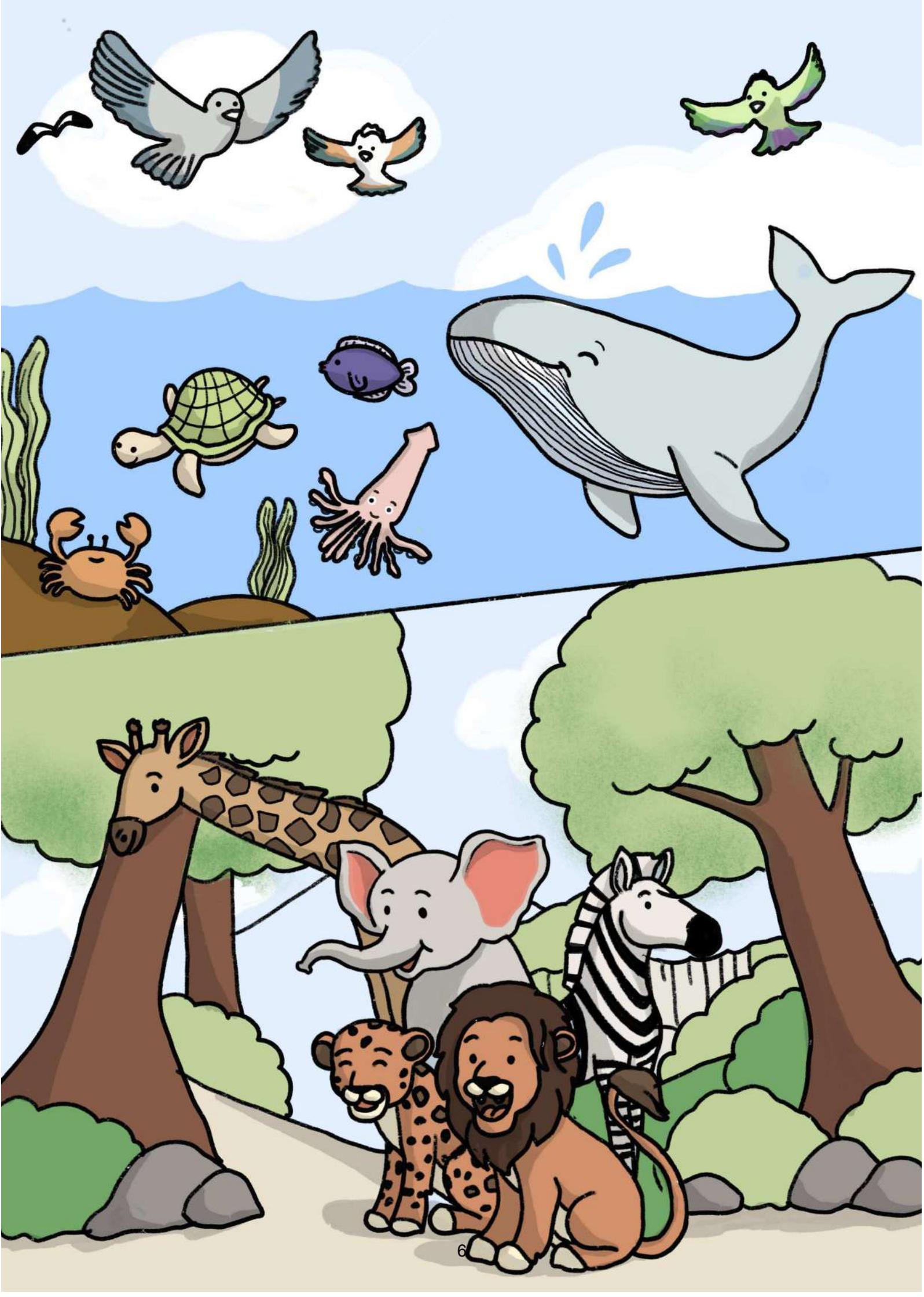
“내가 땅의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3)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처음에 나의 영이 물 위를 다니며 살펴보니 너무 캄캄하고 뒤죽박죽된 것 같았어. 그래서 빛을 만들고 하늘, 땅, 바다를 만들었지.

그럴듯한 것 같긴 한데 부족해서 일단 땅에 먹을거리를 만들었어. 곡식, 채소, 과일 등. 그리고 해, 달, 별을 만들어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 그런 다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만드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어.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 가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했어. 드디어 나의 모습을 빼다 박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내가 만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했지.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나에게 오길 원해.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와~~. 제가 하나님을 완전 닮은 거예요? 난 아빠를 닮은 줄 알았거든요. 하긴 아빠도 하나님을 닮았겠네요.

창세기 1장은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곳이에요. 성경 읽겠다고 약속하고는 맨날 창세기 읽다가 포기한 적이 많아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꼭 기억할 게요.

1.빛 2.하늘 3.땅과 바다 식물

4.해 달 별 5.새와 물고기 6.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2. 아담과 하와

(창세기 2:4~2:25)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었어요.

“후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아~”

“네. 하나님~”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 동산은 참 아름다웠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 나무들을 동산에
심으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셔주었어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 네 근원이 되었어요.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아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맘껏 따먹으렴.”

“네, 하나님! 모든 열매가 너무 맛있어요. 배불러요.”

“아담!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네? 죽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끌고 갔어요.

“아담! 네 앞에 지나가는 것들의 이름을 불러보렴.”

“코가 긴 동물이네요. ‘코끼리’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그 동물의 이름은 ‘코끼리’다.”

“네. 코끼리!”

다음으로 목이 길어서 나무 위에까지 달는 동물이 지나갔어요.

“음~~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부를게.”

“너는 부엉부엉 우니까 ‘부엉이’야.”

“너는 짹짹 ‘참새’야.”

아담은 소, 양, 돼지 등 가축과 독수리, 비둘기, 매 등 공중의 새와 사자, 사슴, 얼룩말 등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담은 동산에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며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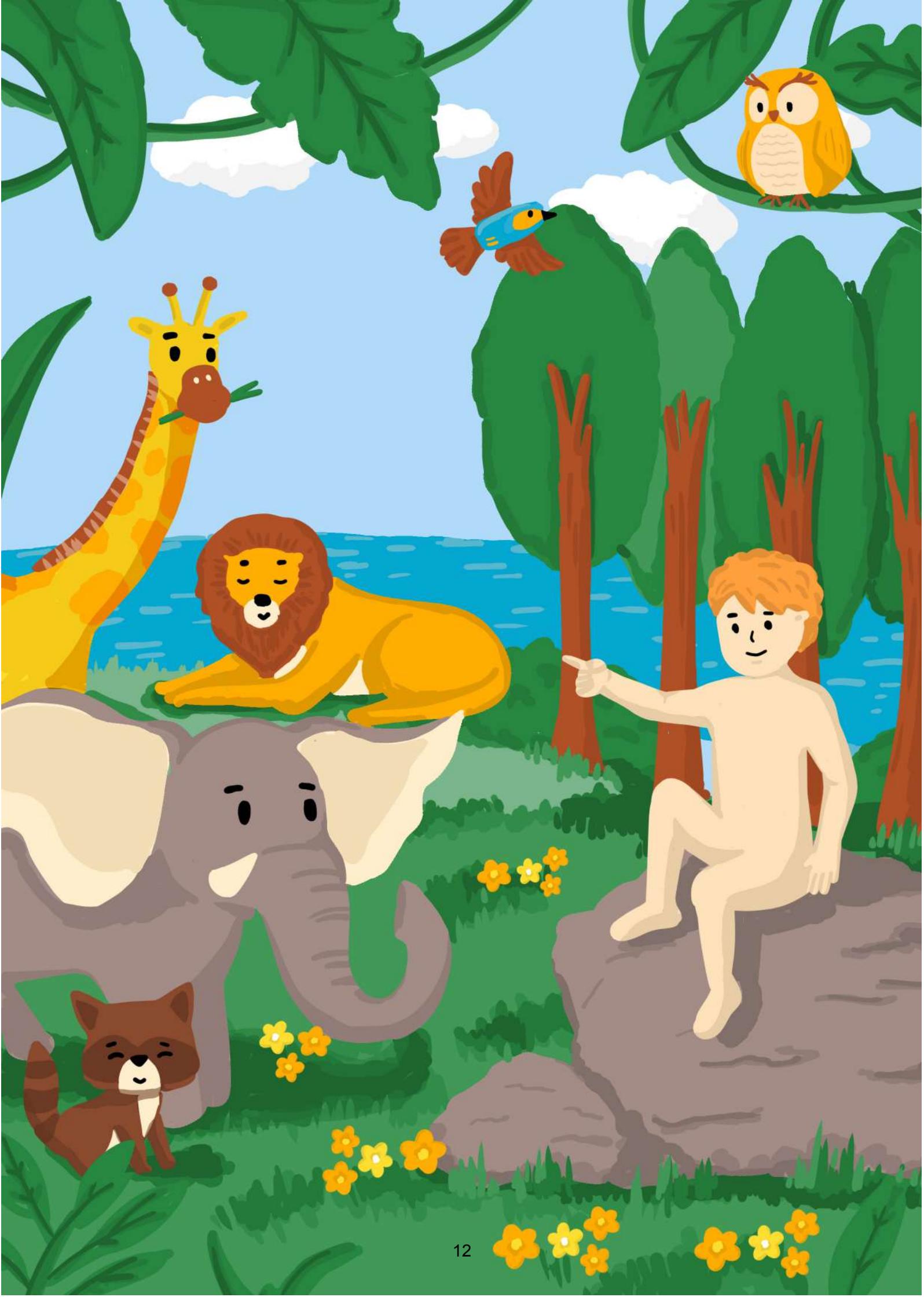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아내를 만들어주어야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 폭 자고 있어. 내가 너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사용해야겠다.”

아담의 갈빗대 한 개를 빼내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 짠~!”

“우와!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짝을 만들었어. 너의 갈빗대를 하나
썩 빼서 만들었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기뻐서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하하! 그럼 어디 불러보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네.”

아담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게 되어서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부를게요.”

아담은 아내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죄악이 없는 순결한 상태였기 때문
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창세기 2:24)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했어.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

어.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동성애는 최악이라. 그건 나의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그 최악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해.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을 먹으며 살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도 걱정이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남자 아빠, 남자 엄마가 나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게 괜찮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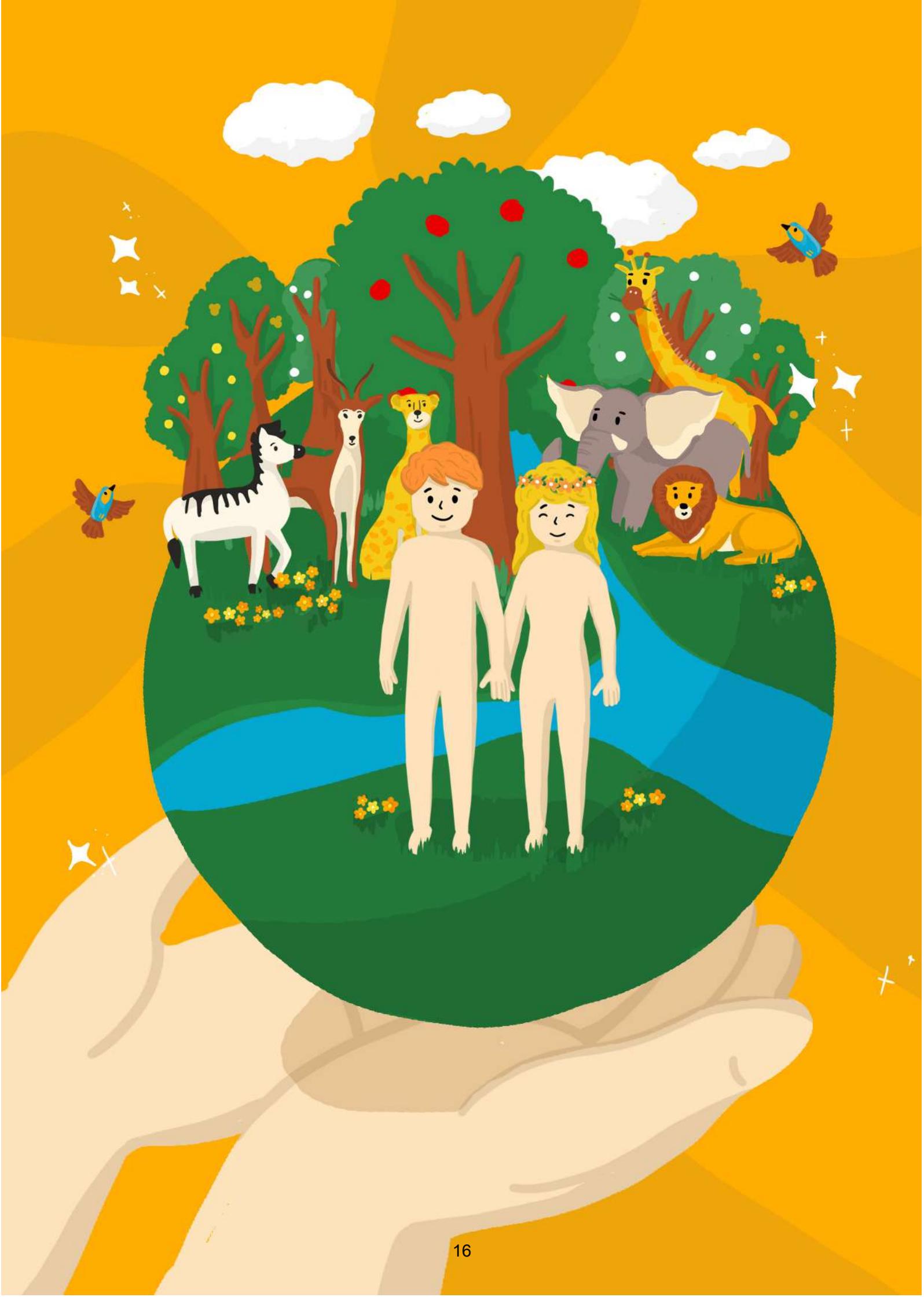
그래서 그 친구와 싸웠어요.

앞으로 정말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떡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3. 핑계 또 핑계

(창세기 3:1~3:24)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나쁜 꾀를 부리는 데에는 일등이었어요.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정말로?”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는 하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긴 혀를 날름거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헛! 이 여자 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쩜 죽을 수도 있다고? 흐흐. 내가 얘기하면 나한테 훌쩍 넘어오겠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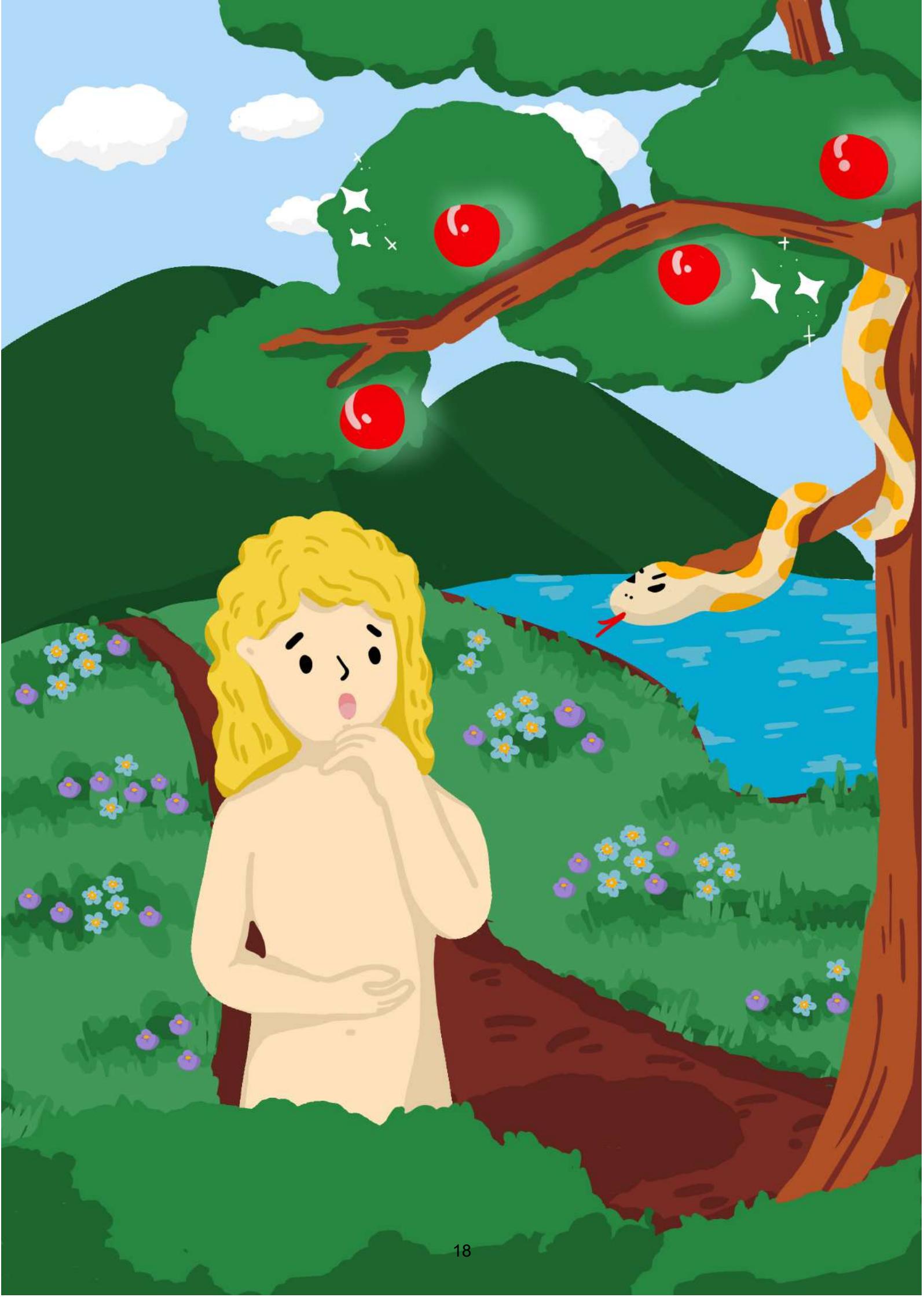
뱀은 모르는 척하고 여자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그 열매를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아.”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보았어요.

“아!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구나.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여자의 손은 벌써 그 나무의 열매에 닿아 있었어요.



참지 못하고 흘랑 따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아담!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음~~ 맛있어요.”

먹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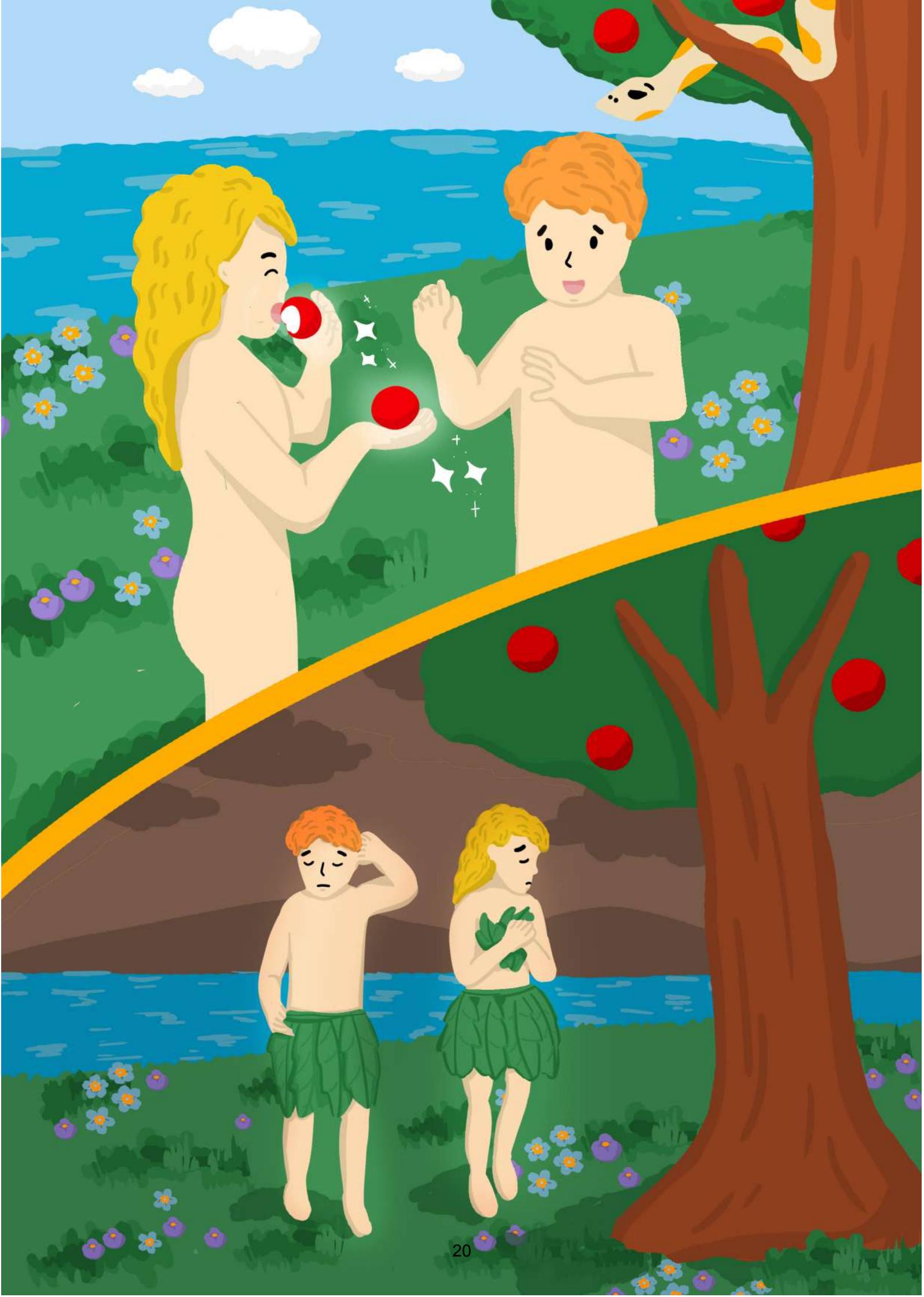
“아이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 벗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무화과나무 앞이 아주 넓고 크니 우리 이걸 엮어서 가려봐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몸에 둘러었어요.
그날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고 계세요.”
“우리 빨리 하나님 피해서 숨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고 있는 것이 두려워 숨었어요?”
“네가 벗고 있는 것을 어찌 알았지? 누가 말해줬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네.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가 하도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어?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먹이고.”

“하나님! 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자꾸 괜찮다고 먹으라고 꼬드겨서 먹었어요.”

“쫓쫓! 핑계! 핑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땅! 땅! 땅!

“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가도록 해!”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아담의 아내인 여자! 너는 아기를 갖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큰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거야. 네가 아무리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아담!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21)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발가벗고 있는 줄도 몰랐어. 그들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지. 자신들의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 풀숲에 숨었더라구. 숨어있는 그들을 보고 “아, 내 명령을 어겼구나.” 바로 알았지.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었어.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해. 자유의지를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먹었어도 바로 뉘우쳤으면 좋았으련만 왜 그렇게 남의 탓만 대는지. 핑계 또 핑계.

그래도 나는 그들을 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사랑이란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에잇! 너는 실패작이야. 다시 만들어야지.”

잘못 구워진 도자기를 부수듯 깨버리지 않으시고 말라 버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셔서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희생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 희생양이 신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교회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4. 가인과 아벨

(창세기 4:1~4:15)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후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채소와 곡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와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예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가인’이라고 불러요.”

“우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장한 청년들이 되었어요.

“아버지! 저는 농사짓는 것이 좋아요. 농부가 될래요.”

“아버지! 저는 들로 나가서 양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양치는 목동이 될래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추수 때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날이 왔어요.

가인이 말했어요.

“동생아, 나는 농사를 지으니깐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드릴 거야. 너는?”

“형아, 나는 양이 낳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 드릴 거야.”

“그래? 자 이제 시작하자.”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분해서 표정이 굳어지고 얼굴색이 붉으락푸르락
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얼굴색까지
변해지도록 화를 내고 있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겠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짐승같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덮칠 거야. 죄가 너를 유혹해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벨! 나와 함께 들로 나가자.”

아벨을 불러낸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죽어! 내가 네 형인데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네 제물만 받으셨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죽어! 에잇!”

아!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모른다구요.”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

“.....”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흐르는 네 동생의 피를 받았어.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

“네가 밭을 갈아도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거야.”

“하나님! 제게 내린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하기 벅차요,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칠 배나 더한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7)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아들 가인도 죄를 짓게 되었지. 그 이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고 한단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었어. 난 언제나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늘 생명줄을 던져주고 있단다.

날 찾기만 하면 그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어. 알겠지?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가인을 보며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 왜 그랬느냐고 몇 번 물어보셨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좋아하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낯선 곳에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전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할게요.

그리구 사실은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 엄마는 맨날 동생만 칭찬해주고 예뻐하는 것 같아서 샘도 나고 속상해요.
하지만 동생 때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5.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창세기 5:25~6:22)

노아의 할아버지는 므두셀라였어요. 므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므두셀라는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69세에 죽었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해야겠어.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로를 줄 거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도 595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77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면서 죄악도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니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후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쓸어버려야겠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부패해서 세상이 온통 최악으로 가득 찼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노아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사람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어.”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거라.”

“네, 하나님!”

“우선 잣나무로 배를 만들 거야. 배는 안에 칸막이를 해서 방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

“네. 역청은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르는 거죠?”

“그렇다. 배의 크기는 길이 135미터, 너비 22.5미터, 높이 13.5미터야. 지붕 위에서 45센티미터 아래로 사방에 창문을 만들고 문은 옆으로 내. 그리고 배를 3층으로 만들어라.”

“네, 하나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예요. 문제없어요. 이 주위에 잣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산의 잣나무를 베면 충분할 것 같아요.”

“노아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거야. 물로 세상을 뒤덮을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도록.

그러나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약속할게.

배를 다 만들면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배로 들어가.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너에게 나오면 그것들을 배 안에 잘 보존해. 그리고 배 안에 너희 식구들과 생물들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해.”

노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내를 불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산에서 배를 만들어야 해요.”

“아니, 산에서 배를 만들면 바다로 어떻게 옮기려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대요.

그러면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거예요. 산에서 만들어야 배의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홍수가 왔을 때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크기로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태어나 장성하여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배는 3층으로 지을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뭐라 하는데?”

“산에다 무슨 배를 만드냐고요.”

“셈, 함, 야벳! 나의 아들들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니까.”

“네, 아버지. 이제 뭐 할까요?”

“음. 송진 모아둔 것으로 역청을 만들어서 배 안팎으로 꼼꼼하게 빈틈없이 바르도록 해.”

“넵!”

“지붕엔 창을 내야 돼. 그래야 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바꿀 수 있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배는 완성되었어요. 무려 120년에 걸쳐 만든 방주였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22)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노아는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이 없었어.

늘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단다.

노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도 나와
동행하며 예쁘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하늘로 내가 불렀지.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왔어.

에녹, 노아 모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한 거지.
너희들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내 손 꼭 잡고 함께 살자~~.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노아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방주
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넓이는 축구장 크기랑 비슷한데 길이는 더 길고 높이는 아파
트 3층보다 조금 더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방주를 12년도 아닌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니 놀랍고
놀라워요.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보고 엄청 손가락질
했을 텐데 그쵸, 하나님?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예수님, 믿으세요.” 소
리도 잘 하지 못하는 저는 노아 할아버지 발뒤꿈치도 못 따
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6. 홍수와 무지개 (창세기 7:1~9:17)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암수 일곱 쌍씩 들여보내도록 해. 그래서 홍수
가 끝난 다음에 땅에서 종족들이 보존되도록 해.
지금부터 7일 후에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서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모조리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노아가 다 지켜 행했어
요.

노아와 아내, 셈 함 야벳 아들과 며느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아요. 비가 얼마 동안 오는 거예요?”

“응. 40일 동안 내리신다고 했어.”

“이제 창밖으로 나무도 산도 집도 사람도 안 보여요.”

“맞아요. 이제 사방으로 물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땅에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배가 물 위에 두둥실 뜨기 시작하더니 물결 따라 떠다녔어요.

온 세상의 높은 산들도 다 물에 덮였어요. 물은 점점 불어났어요.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도 물의 몇 미터 아래까지 잠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물에 잠겨 죽었어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 가족뿐이야. 세상에 살아남은 생물들도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뿐이구나.”

40일 후 터져 나왔던 지하의 샘이 막히고 열렸던 하늘의 창도 닫혀서 비가 그쳤어요. 그 후 세상은 150일 동안 물에 덮여있었어요.

“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힘들겠구나. 물이 줄어들게 해주어야겠어.”

하나님이 땅에 바람을 불어 주셨어요. 그러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방주는 150일 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문을 열었어요.

“까마귀야! 나가 보아라.”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아야겠어.”



비둘기는 물이 땅을 덮고 있어서 앓을 곳을 찾지 못해 배로 돌아왔어요.

“아~. 아직 물이 땅을 덮고 있는가보다. 비둘기야, 이리 와 내 손에 앉으렴.”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비둘기야, 네 입에 물고 있는 것은 감람나무 잎사귀 아니니? 이제 땅에 물이 줄었나 보구나.”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땅에 물이 빠졌어요.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라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네 가족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도록 하거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어 번성하게 하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일곱 쌍씩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제물을 골랐어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올려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땅에 가득 차도록 번성하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약속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13)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내 손으로 망하게 하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어.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눈 뜨고 볼 수 없었던단다. 1년 하고도 10일간을 방주 안에서 지내는 노아와 가족들, 배 안으로 들여보낸 모든 생물을 보는 것도 마음 아팠어.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약속했어.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란다.

나는 무지개를 보고 노아와의 약속을 기억하듯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너희들을 구원해야한다는 약속을 기억한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을 천국의 길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 하늘에서 무지개 보았어요. 비 갠 후 하늘을 보았는데 무지개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그 무지개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래 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하나님! 궁금한 게 있어서 교회학교 전도사님에게 물어 보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그 큰 공룡을 어떻게 들여보내셨어요?”

“음~~ 그건 큰 공룡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새끼를 들여보냈든지 아니면 알을 들여보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해주었어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ㅎㅎ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도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7. 바벨탑 (창세기 10:1~11:9)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대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의 축복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셈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어요.

함의 아들로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었어요.
구스가 낳은 아들 중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니므롯은 자신들보다 약한 부족들을 정복해서 그의 나라는
시날에서 시작하여 앗시리아, 니느웨, 갈라까지 영토가 넓어
졌어요.

가나안 자손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시돈에서
부터 소돔, 고모라 등을 지나 라사 등에서 살았어요.

야벳의 종족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해양민족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나라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들 중에 살 곳을 찾아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이 평지는 살기에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여기에 뿌리를 내리자.”

“그래 그래.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젠 힘들어.”

“넓게 펼쳐진 평원에서 안정되게 살아가자.”

그들은 드넓은 평야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말했어요.

“그럼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집을 지어서 살자.”

“진흙 대신 역청을 발라서 더 든든하게 만들자.”

그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살다보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들은 홍수 대사건이 생각났어요.

“자, 성도 쌓고 가운데에는 탑을 쌓아 올리자.”

“또 홍수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탑을 든든하게 쌓자.”

“좋아. 기왕이면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응응. 대를 쌓아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우리

절대 흠어지지 말자.”

사람들은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저 사람들은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저들이 마음먹고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는 걸.”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이 하는 말을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자 성 쌓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구운 벽돌 올려줘!”

“알겠어.”

“아니, 벽돌 달라니까 왜 물을 올려주는 거야?”

“물 달라고 해 놓고 왜 짜증이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모두 우왕좌왕 했어요. 결국 탑 쌓는 것을 그만 두었어요.

“이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겠어.”

“맞아. 우리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야겠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각기 흠으셨어요.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혼란’이란 뜻을 지닌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9)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알기로 이 지구상에 6000가지의 언어가 있고 성경만 해도 1600여 가지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들었어.

하나의 언어가 그렇게 많은 언어로 나뉘게 된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어.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는 내 축복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시날 평지에 정착하려 했고 탑을 쌓아 나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했지.

왜 그렇게들 내 말을 안 듣는지 쫓쫓쫓!!!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희들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만하여 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지.

나에게 순종하여 나의 능력이 너희 것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바벨탑 쌓은 사람들 미워요.

그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세계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영어 배우려고 영어 학원 다녀야죠, 방학 때 영어 캠프 가야죠. 부모님은 영어 100점 맞으라고 성화시죠.

에휴~~ 그러나 어찌겠어요. 천국에 가야 모든 언어가 한 가지일 텐데…….

하나님 만날 때까지 순종하며 잘 살아갈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8. 복의 근원이 된 아브람

(창세기 9:18~9:27,12:1~12:20)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어요.

“형! 동생아! 빨리 와봐!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신다. 흐흐”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 드렸어요.

노아가 술에서 깬 뒤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 말했어요.

“가나안의 아비인 함! 네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또 말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될 것이다.”

아브람은 바로 이 셈의 후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지금 즉시 이곳 하란에서 떠날게요.”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가
칠십 오 세였어요.

아내 사래와 조카 롯, 하인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갖
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도착해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장막을 쳤어
요.

또 다시 남쪽으로 갔어요. 벧엘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그 땅은
너무 농사가 안 되어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이곳은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우리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가 가까워지자 아브람은 너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래!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남편인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아브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고 말해. 그러면 내 목숨이 안전하게 보존될 거야. 알겠지?”



아브람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사래가 아름답다고 난리가 났어요.

바로와 신하들도 사래를 보고 바로 왕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왕이시여! 아브람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의 여동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옵니다.”

“그래? 그 여인을 내 앞에 당장 데려와. 그리고 오빠 되는 자를 후히 대접해.”

바로는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암수나귀와 약대, 종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를 알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야! 네가 취한 여인은 아브람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이다. 남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는 큰 벌을 받아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들였어요.

“아브람! 너 왜 그랬어?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네가 바른대로 말했으면 네 아내를 내가 아내 삼았겠어? 자, 당장 네 아내를 데리고 가버려!”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의 아내와 그 소유들을 모두 이집트 밖으로 내보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창세기 12:2)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브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조건 내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야.

살고있는 집도 친척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나의 말에 사랑하는 아내와 조카 롯만 데리고 떠났거든.

목적지도 없었어. 내가 “네가 살 곳이 여기다.”하면 살고 “떠나라.”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있었던 거지.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 단을 쌓고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

아브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고 닮아가도록 해.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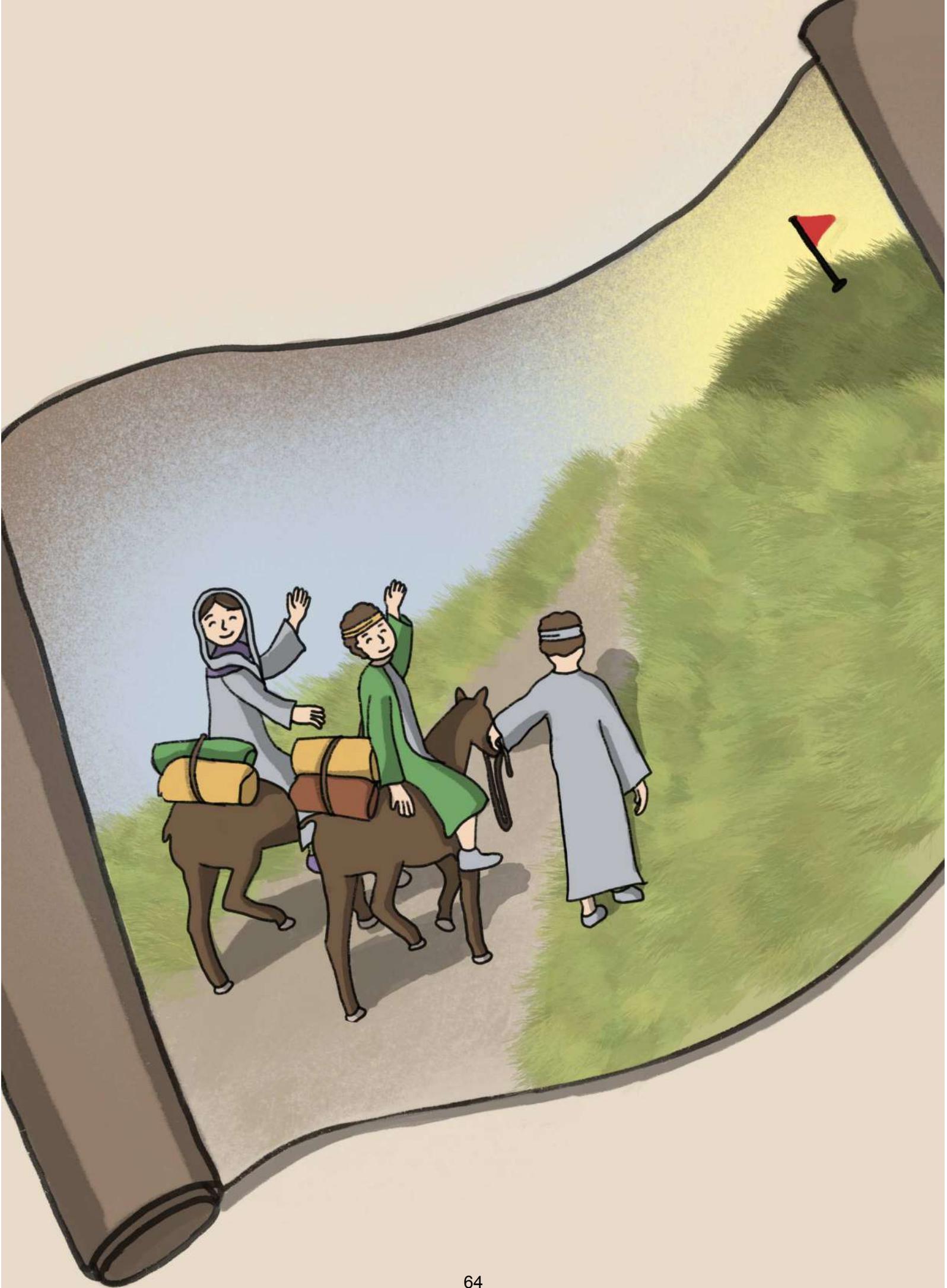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노아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니까요.

근데요. 오늘 바로 왕 앞에서의 아브람은 찌질이 같아요. ㅎ 아내를 앞세워 거짓말하게 하고 그 뒤에 숨어서 살아남으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도 하나님 끝까지 떠나지 않을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9. 아브람의 새 이름 아브라함

(창세기 17:1~17:27)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죄짓지 말고 흠 없이 살아라.”

“네, 하나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로 자손과 재물이 매우 많아지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아브람은 즉시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겠어.”

“네?? 그럼 제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지.”

“네,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을 줄게.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지킬 거야.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게. 가나안 땅 전체가 네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와 네 후손들은 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해.”

“하나님! 그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해.”

“할례요?”

“남자 성기에 덮여있는 피부를 둥글게 잘라내는 것이 할례란다.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기억했어요.

“네. 그럼 그 할례는 언제 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그럼 우리 자손들만 할례를 하면 되나요?”

“아니.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도, 외국에서 돈으로 사온 종도 모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피부에 지니게 되는 거야.”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였어요.

“하나님!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거야. 나와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할게요.”

아브라함이 이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지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언약이 무엇인지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란다.”

“종들도 받나요?”

“그럼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야 해.”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 외국에서 돈으로 사온 종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고 아들 이스마엘은 십 삼세였어요.

그 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5)

Everlasting Covenant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진짜임을 알 수 있도록 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지.

우선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어. 아브람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을 주었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민족들이 번성하여졌을 때 나의 백성과 이방인의 백성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게 말이야.

그럼 지금 너희들은 어떡하냐구?

그건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 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고백하며 생활 잘 하다가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도록 하렴!

사랑한다! 나의 아들, 딸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 저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표가 된 거네요. 저는 어려서 아직 세례를 받을 수 없지만 중학생이 되면 꼭 받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저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게요.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0.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8:16~19:29)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죄악이 매우 심하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인지 그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보아야겠구나.”

함께 있던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드렸어요.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거예요? 그 성안에 의인 오십 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오십 명도 함께 죽이실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의인 오십 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을 다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드렸어요.

“먼저 같은 나지만 감히 또 말씀드려요. 의인 오십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하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을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성에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실 거예요?”

“음, 사십 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곳에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실 거예요?”

“삼십 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정말 정말 죄송해요. 감히 말씀드릴 게요.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실 거예요?”

“이십 명이 있다면 그 성을 다 용서할게.”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말씀 드릴 게요. 거기서 열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실 거예요?”
“하하! 열 명을 찾아도 멀하지 않으마.”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즉시 가셨어요.

날이 저물 때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났던 두 천사가 도착했어요. 그때 마침 문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향해 옆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주여! 저희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서 자고 가도 돼요.”

롯은 여러 번 간청하여 그들을 집으로 모신 후 식사를 대접했어요.

“광 광!! 이봐요, 롯! 문 열어요. 저녁에 당신 집으로 들어간 손님들을 내보내요. 우리가 그들과 놀아야겠어요.”

롯이 문밖으로 나가 말했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을 보내줄 테니 내 딸들과 놀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게.”

“너는 물러나 있어. 니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법관 노릇을 하는 거야? 우리가 너부터 없애야겠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밖의 사람들의 눈을 모두 어둡게 했어요.



그들은 문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어요.

“너의 가족이 이들 외에 또 있느냐?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도록 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없애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

롯이 나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고
안 믿었어요.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옮겨주었어요.

“얼른 도망가라. 갈 때에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도록 해.”

“주여! 산까지는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요. 저기 보이는 저 성은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 그럼 그곳으로 가기까지 그 성을 멀하지 않을게.”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
았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성들과
온 들을 덮었어요.

아! 롯의 아내는 소알에 들어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앞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19:29)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의 죄악은 끝을 모르고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 갔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살아 갔기에 내가 도저히 그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기로 한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중보했는지 알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었어.

의인 열 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롯의 가족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성에서 구원받았지. 그러니 너희들도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도 기도를 해야하지만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도록 해.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 곁에서 그 믿음을 닦기 위해 노력해 봐.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쿼어 축제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화면에 나오면 엄마 아빠는 놀라서 TV를 끄세요. 그래도 흘깃 봤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이 망한 걸 보니 성안에 의인이 열 명도 없었다는 거네요.

열 명만 있어도 용서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TTT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할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1.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17:15~19, 18:9~15, 21:1~22:19)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래를 이제부터 사라로 부르거라.”

“하나님?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제게 자식 하나 없어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할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 나이가 백세요 사라의 나이가 구십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네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건데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마므레 근처 상수리나무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니?”

“네. 장막에 있어요.”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내가 이제 늙었고 아브라함은 나보다 더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러지?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니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삭이 나뭇짐을 지고 산에 오를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두 하인과 번제에 쓰려고 쪼갠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땅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같이 온 하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같이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응?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아! 제물로 바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어요.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여!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확실히 알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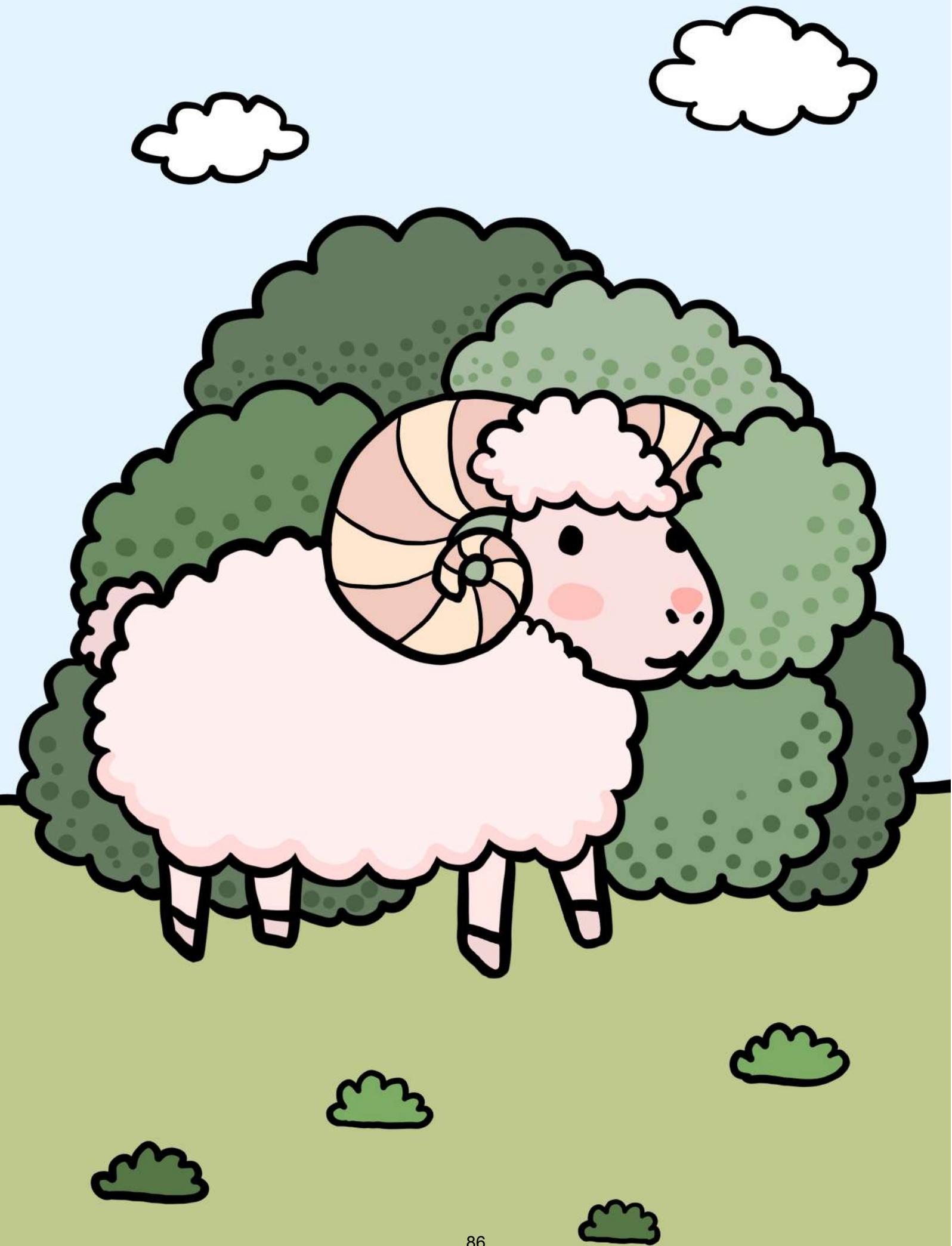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숫양 한 마리가 풀숲에 걸려 있었어요.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은 네게 큰 복을 주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과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아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4)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은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아들을 바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한 마디도 되물어보지 않고 다음날 일찍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났어. 모리아 땅의 그 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
나 무거웠을지 상상해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잘 키워놓았더니 바치라고 하는 내
가 미웠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아낌없이 나를 위해 제물을 불
태울 제단에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무척 나를 기쁘게 했어.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할 만하지?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해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이삭도 어쩔 그렇게 아버지처럼
믿음이 좋을까요?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 위에 십자가를 지
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제물이 올라가야 할 제단에 자신의 몸을 묶어 올려놓는 아버지
에게 반항하지도 불손종하지도 않는 이삭을 보니 십자가를 지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
었어요.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숫양도 우리 죄를 대신
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2.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창세기 24:1~24:67)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삭을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을 불렀어요.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놓고 맹세해. 내가 너로 여호와께 맹세하게 할 거야.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택하도록 해.”

“그런데 주인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향, 친척을 모두 떠나라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내 고향 땅에 보내셨을 거야.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해.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그 땅에 데려가서는 안 돼.”

그 종은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했어요. 낙타 열 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했어요. 성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낙타들을 쉬게 해야겠구나.”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오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 종은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제가 이 우물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하고 물어볼게요. 이때 그녀가 ‘네.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라고 대답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으로 알겠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왔어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종이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가씨!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네. 그럼요. 마시세요.”

물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했어요. 다 마시자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물을 길어 와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항아리의 물을 먹이통에 붓고 우물에 가서 여러 번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들이 실컷 마시게 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이 길을 잘 인도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을 때 5.7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금 코고리 한 개와 114그램짜리 금팔찌 한 쌍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아가씨는 누구 딸이요? 아가씨 집에 우리가 잘만한 방이 있소?”

“제 아버지는 브두엘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며 할머니는 밀가예요. 저는 리브가이고요. 우리 집에는 낙타가 먹을 짚과 먹이가 충분히 있고 주무실 방도 있어요.”



그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베푸시어 제 주인의 동생 나홀의 집으로 바로 인도해주셨어요.”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오빠 라반은 리브가가 받은 금들을 보고 동생이 한 말을 듣고 우물로 달려갔더니 그 사람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어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라반은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 종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내가 이곳에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좋아요. 어서 말해 보세요.”

그 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게 된 것과 함께 맹세한 말, 우물가에서 기도한 내용,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난 일까지 다 말했어요.

“자, 이제 당신들이 리브가를 어찌할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돼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세요.”

리브가는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그곳을 떠나서 이삭을 만났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67)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며느리를 가나안 민족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데려올 수는 없었어. 그래서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을 불러 맹세하게 했어. 내가 반드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야. 그의 종도 마찬가지로. 그도 나에게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맹세한 일을 하려고 했지.

그 모습이 예뻐서 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인도했어. 너희들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리브가 오빠와 엄마가 리브가를 보내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떠나겠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이었음에도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하던 내 모습이 찝끔 부끄러웠어요.

믿음 좋은 이삭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리브가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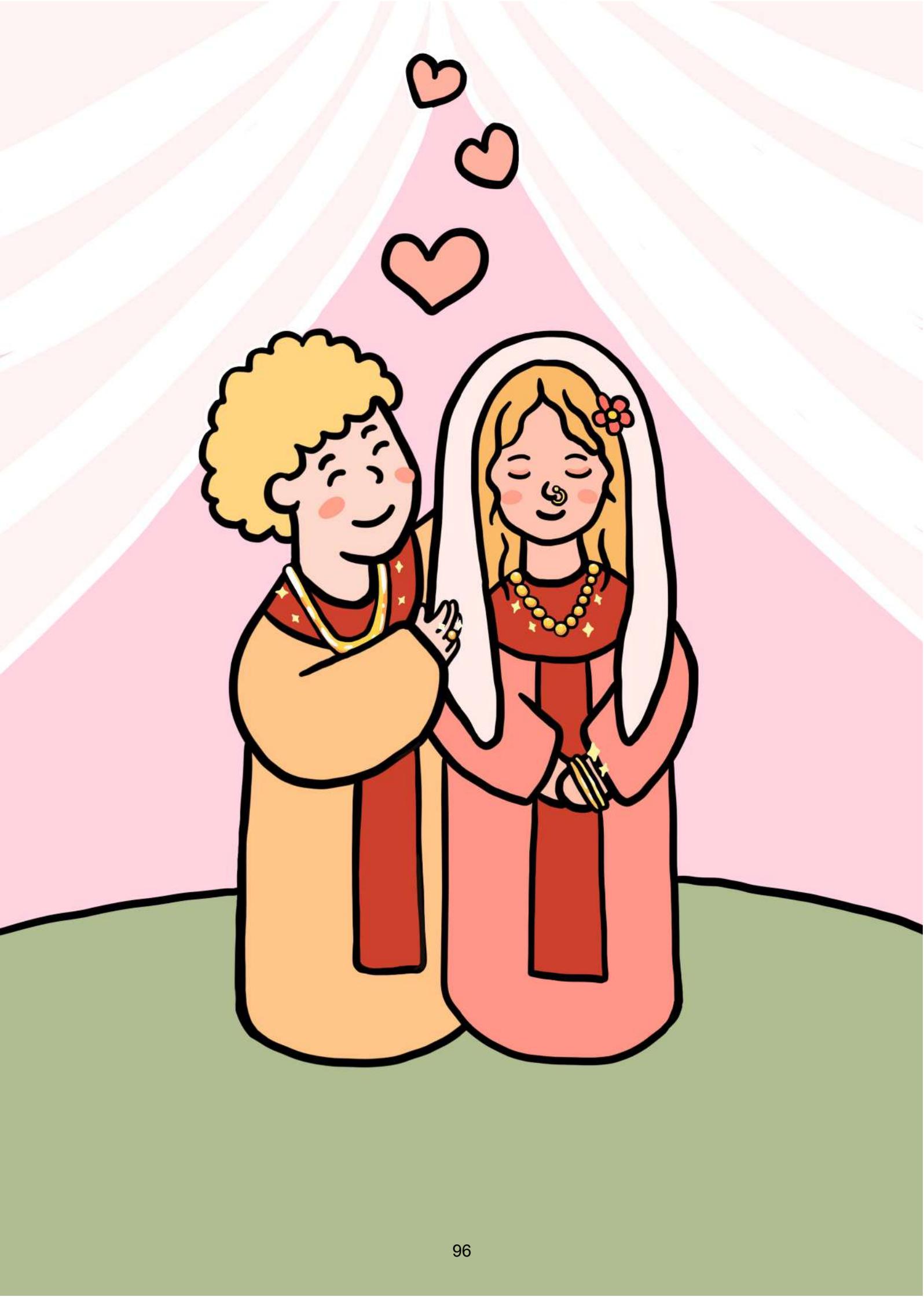
땀 땀안땀 땀! ♪♪♪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심을 보여주는 결혼이에요.

저도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3.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26:1~26:35)

아브라함 시대에 찾아왔던 심한 흉년이 이삭이 살고 있을 때에도 찾아왔어요.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도록 해.”

“네. 주님!”

“이삭! 네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법과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는 복이란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여인은 누구요? 무척 아름답던데.”

“내 여동생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창문을 통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니, 저 자는? 여동생이라면서 둘이 껴안고 있어? 여봐라! 당장 이삭을 데려오너라.”

“이삭! 당신은 나를 속였소. 내가 보기에 리브가가 아내임이 확실한데 어째서 동생이라고 하였소?”

“네? 저 사실은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게 될까 봐 그랬어요.”

“우리 백성 중 누군가가 당신 아내를 데려갔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소?”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지금부터 이 사람과 그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 것이다.”

이삭은 이후 안심하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해 백 배의 추수를 했어요. 이삭은 농사가 점점 잘 되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우리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걸 보니 배가 아프다. 우리 모두 저들이 판 우물을 모두 훔으로 메워버리자.”

아비멜렉 왕도 이삭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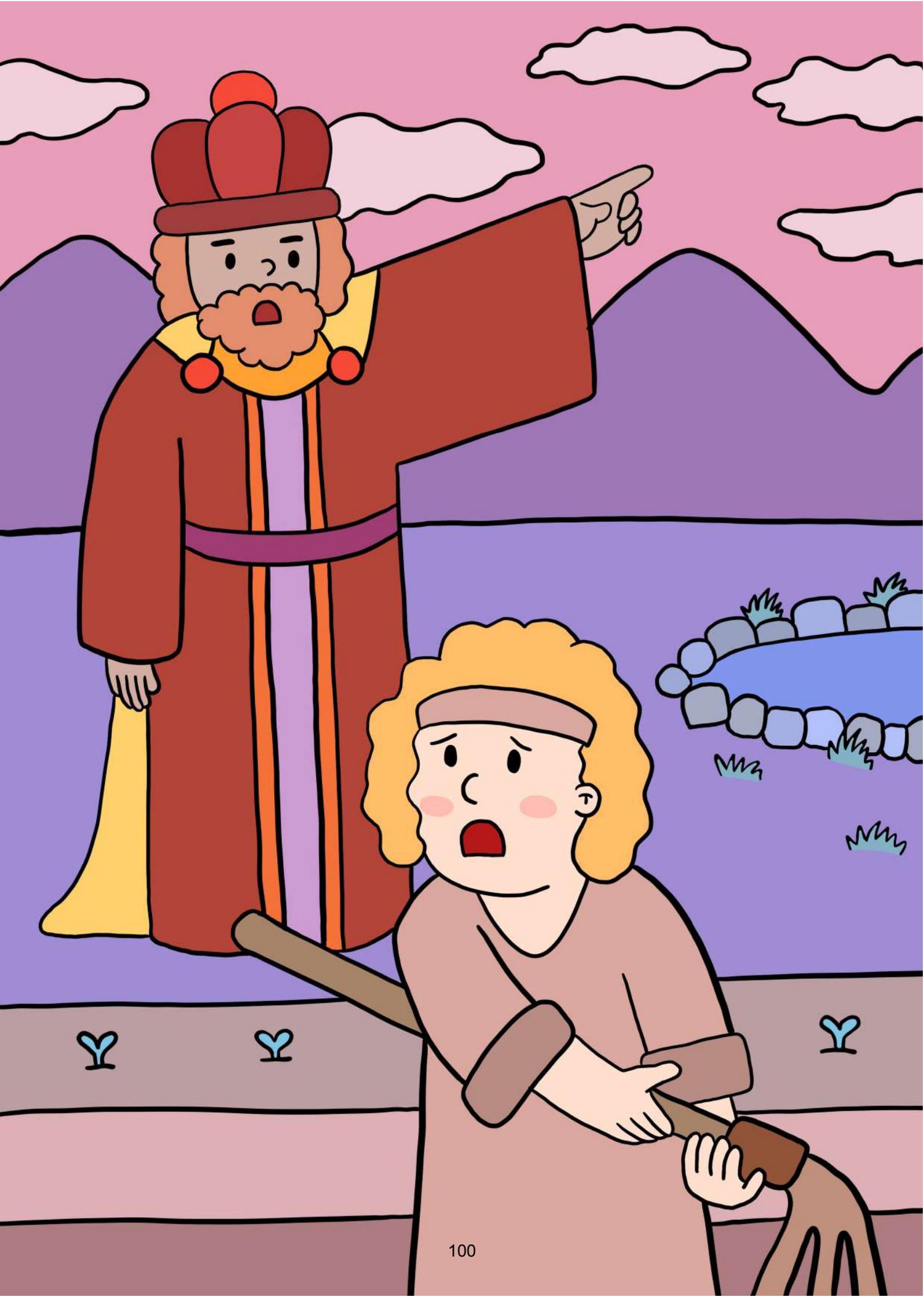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인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훔으로 메워버렸거든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왔어요.

“이 우물은 우리 꺼야.”

“얘들아, 이 우물 주고 다른 곳으로 가자. 그리고 이 우물을 다툼의 우물 ‘에섹’이라고 부르자.”

다른 곳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랄의 목자들이 또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적대의 우물 ‘싯나’라고 불렀어요.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은 더 이상 우물을 뺏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이 우물은 넓은 우물 ‘르호봇’이라고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우리가 점점 잘될 일만 남았어.”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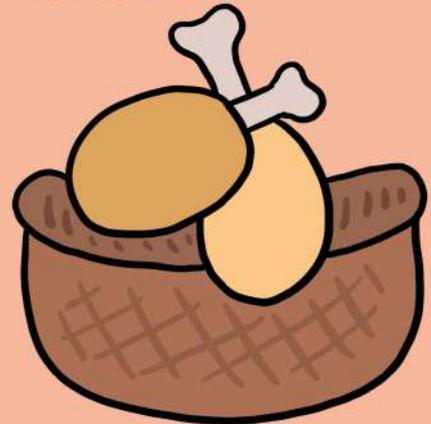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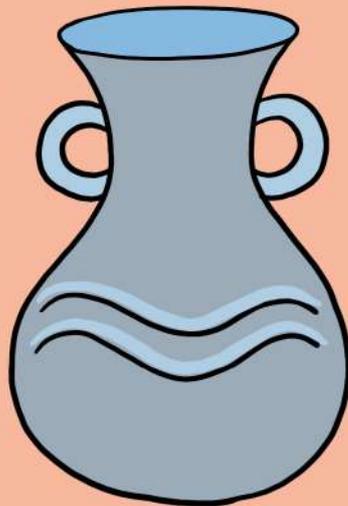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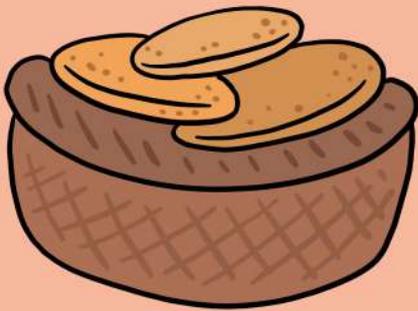
“이삭아!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삭은 그곳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하인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이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여기에 무슨 일로 다시 온 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하고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고 평안하게 가도록 하지 않았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서로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어요.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창세기 26:32-33)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삭에게 나타났지.

복을 주고 땅을 주고 후손을 주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했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게 된 거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잘 살펴보렴.

내가 아담과 가인은 자신 없어도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은 자랑할 수 있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말이야.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복을 받아 그 계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로 이어진단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에서 엄청 웃음 났어요. 아버지도 그 아들도 어쩔 그렇게 닳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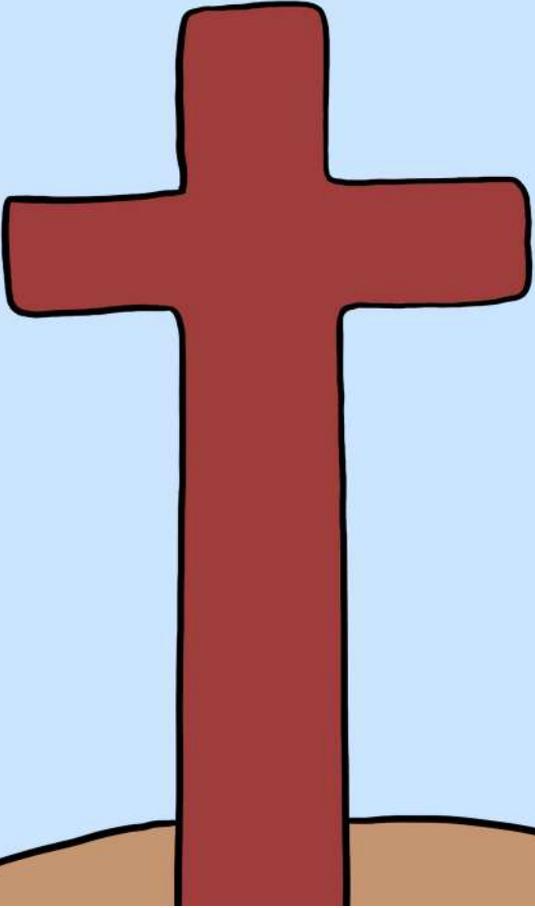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도,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짱! 짱! 짱이에요.

그리고 우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구약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4.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19~25:34, 27:1~27:23)

이삭이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리브가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아이가 쌍둥이인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어떡하죠?”

“그럼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 여쭙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나뉠 거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출산을 했더니 과연 아들 쌍둥이였어요. 먼저 나온 아들은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어요. 나중에 나온 아들은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왔어요.

“털이 많은 큰 아들은 ‘에서’라 하고 발꿈치를 잡은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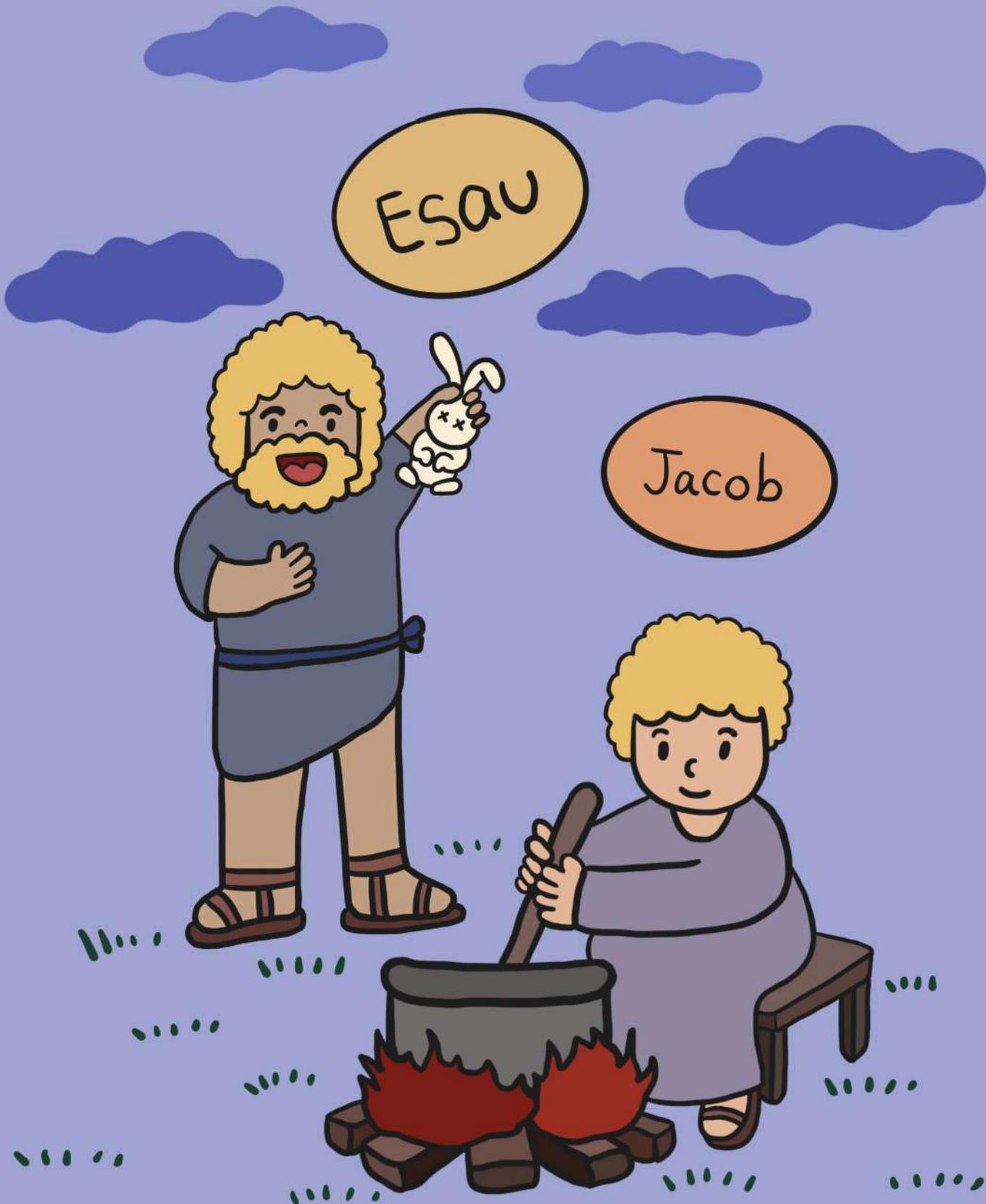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들에서 주로 생활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서 생활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팔죽을 쑤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야곱! 나 엄청 배고프고 피곤해.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볏은 것 좀 먹게 해 줘.”

“그래? 그럼 내가 쑤 팔죽을 줄 테니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팔아.”



“야! 그까짓 말아들 권리가 뭐라구.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 가져. 빨리 팔죽이나 가져와.”

“형! 그럼 지금 내게 맹세해.”

“알았어. 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말아들의 권리, 장자권 팔 것을 맹세한다.”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자 다 먹고 갔어요. 에서는 자신의 말아들의 권리를 너무 업신여겨 한 끼 음식과 바꿔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말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내 아들 에서야!”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들에 나가서 사냥하렴.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다오.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우선 염소 떼가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하여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게. 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시도록 해.”



“그런데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어떡해요? 아버지가 만지시면 금방 탄로 날 거예요. 그럼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까 봐 무서워요.”

“사랑하는 내 아들!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게 돌아오게 할게. 내 말 대로만 해.”

야곱이 염소 두 마리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아버지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 야곱에게 입혔어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입혔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했으니 일어나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들아, 어떻게 이리도 빨리 잡았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렴.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구나.”

야곱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 보았어요.

“거 참 이상하도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털이 있는 야곱의 손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34)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에서는 내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결국 동생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지.
아브라함이 기도로 이삭을 낳았듯이 이삭도 기도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었어.
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친히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태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이야기했건만 리브가는 참고
기다리질 못했어.
야곱과 함께 참고 기다렸다면 내가 알아서 복을 주었을 텐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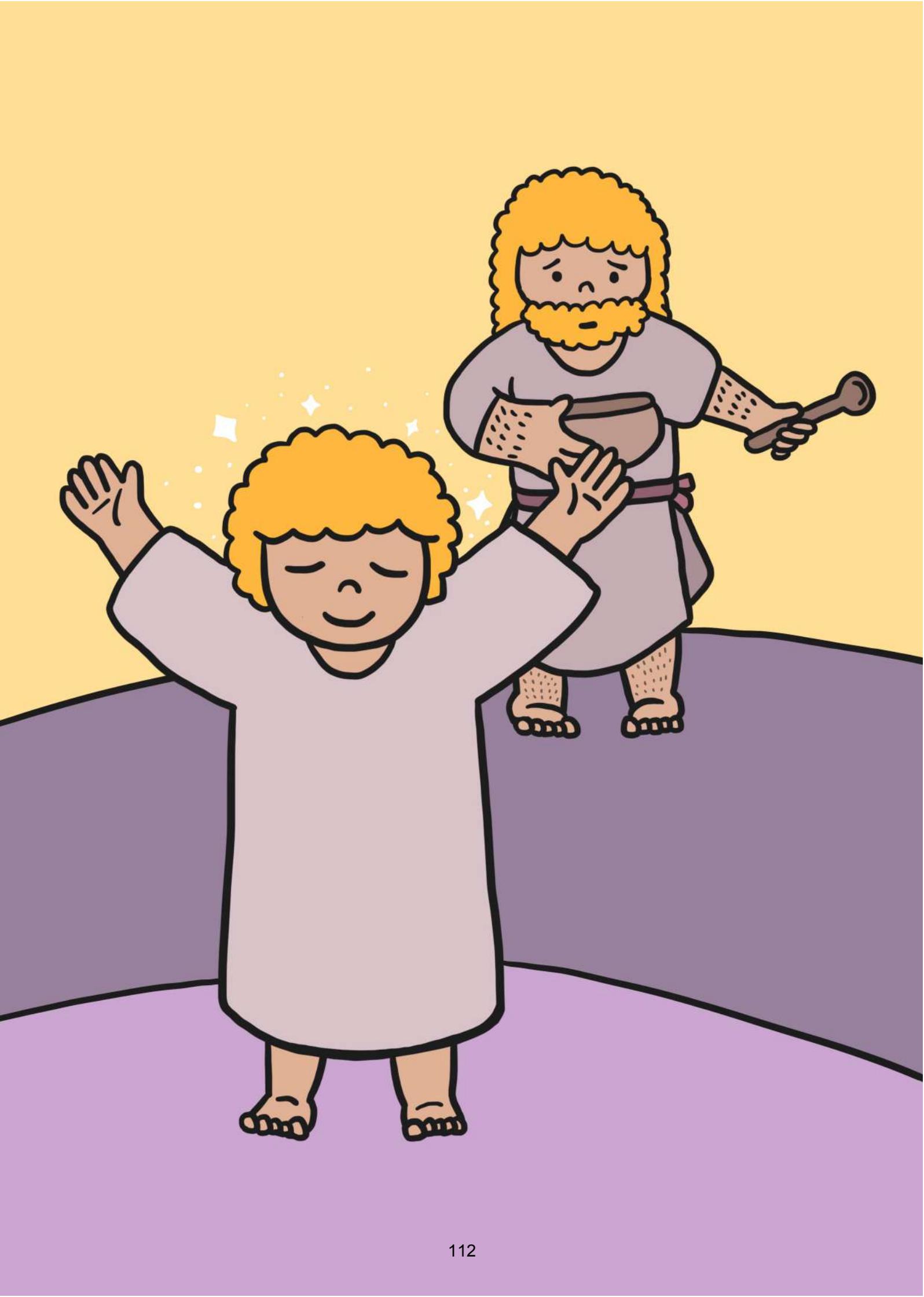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가 해주길 기다리길 바래.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야곱이 너무 얄미워요.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
도 형의 발꿈치 잡고 태어나더니 팔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사고, 나중에는 축복까지 가로채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5. 야곱이 받은 축복

(창세기 27:24~28:5)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 원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자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일어나서 드셔보세요.”

“너는 누구니?”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예요.”

이삭이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아니, 좀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아들은 누구냐?”

“네? 아버지!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아니야. 방금 전에 내가 그 요리를 다 먹고 그에게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거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 엉엉!!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여 네 복을 빼앗았구나.”

“아버지! 야곱은 나와 목소리도 다르고 나는 털이 많고 야곱은 없는데 어떻게 속으실 수가 있어요?”

“글쎄, 음성은 야곱이었는데 손에 분명히 털이 많았고 옷에서 너의 냄새가 났었어.”

“아버지! 그 애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속이다’는 이름값을 하고 있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예요. 날 속인 것이. 지난 번에는 팔죽으로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아갔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를 위해 빌 복이 없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미 그를 네 주인이 되도록 했어. 그의 모든 친척들이 그의 종이 되고 곡식과 포도주까지 모두 주었으니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

에서는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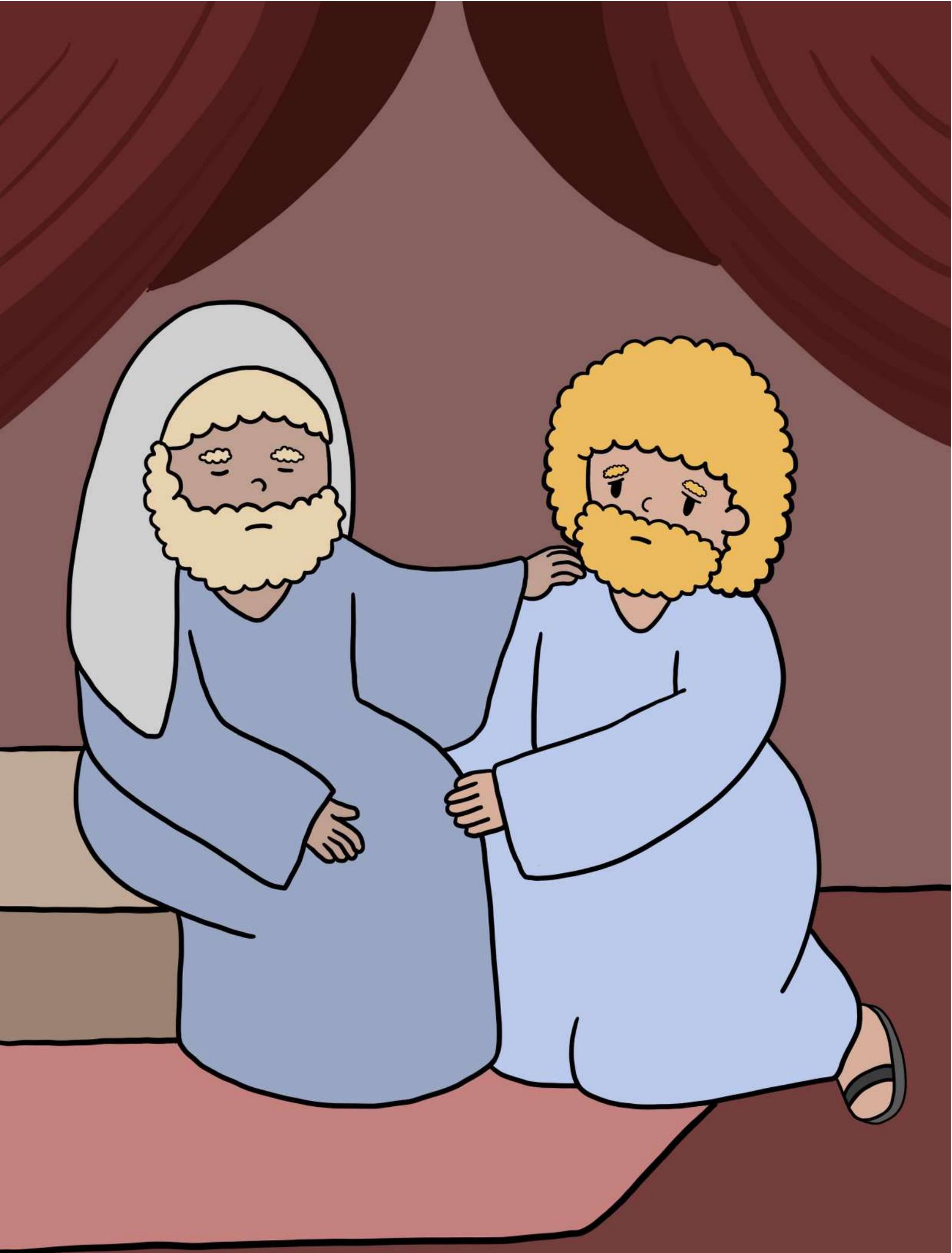
“아버지! 제발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엉엉!!”

“에서야!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며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했어요.

“야곱, 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말겠어.”

에서가 화를 내며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네.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네 형의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어. 형의 분이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도록 할게. 내가 아들 둘을 한날에 잃을 수는 없잖아. 내가 아버지에게 잘 말할게.”

그리고 이삭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이 땅의 헛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만일 야곱이 헛 사람의 딸과 결혼한다고 하면 남은 삶을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해.”

“네, 아버지!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네게도 주시고 네 자손에게도 주실 거야. 네가 사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기도하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후 그를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했어요.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8:3-4)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야곱은 내가 주는 축복을 사모한 자였어.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다.

축복받은 대로 야곱은 기름진 땅에서 많은 수확물을 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됐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함께 했어.

그러나 에서는 산악 지역인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늘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돼.

그러므로 내가 복 줄 대상은 말아들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길 원해.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참 재밌어요.

형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복을 가로챈 거짓말쟁이 야곱.

복을 받긴 했지만 결국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것이 거짓말한 벌이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엄마와도 만나지 못하고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저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할 때 심장이 간질간질했어요. 진짜 야곱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요.

하지만 지혜로운 리브가 덕에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축복을 받은 후 떠나는 야곱을 보고 안심했어요. 아! 다음 이야기가 기대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6. 야곱이 벰엘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28:10~29:14)

야곱이 그동안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길을 떠났어요. 가다보니 해가 졌어요. 잘 만한 곳을 찾아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 삼아 누워 잤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우와! 저렇게 긴 사다리는 처음 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있어. 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눈을 떴지 않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놀랍게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깬어요.

“아! 두렵고 두려워. 이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야.”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잔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벰엘’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런 후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또 맹세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십일조를 드릴게요.”

야곱이 걸음을 계속 재촉하여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어요.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세 양떼들이 물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물엔 큰 돌이 덮여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양떼들이 다 모이면 우물에 덮어두었던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런 후 돌로 우물을 다시 덮어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목자님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희는 하란에서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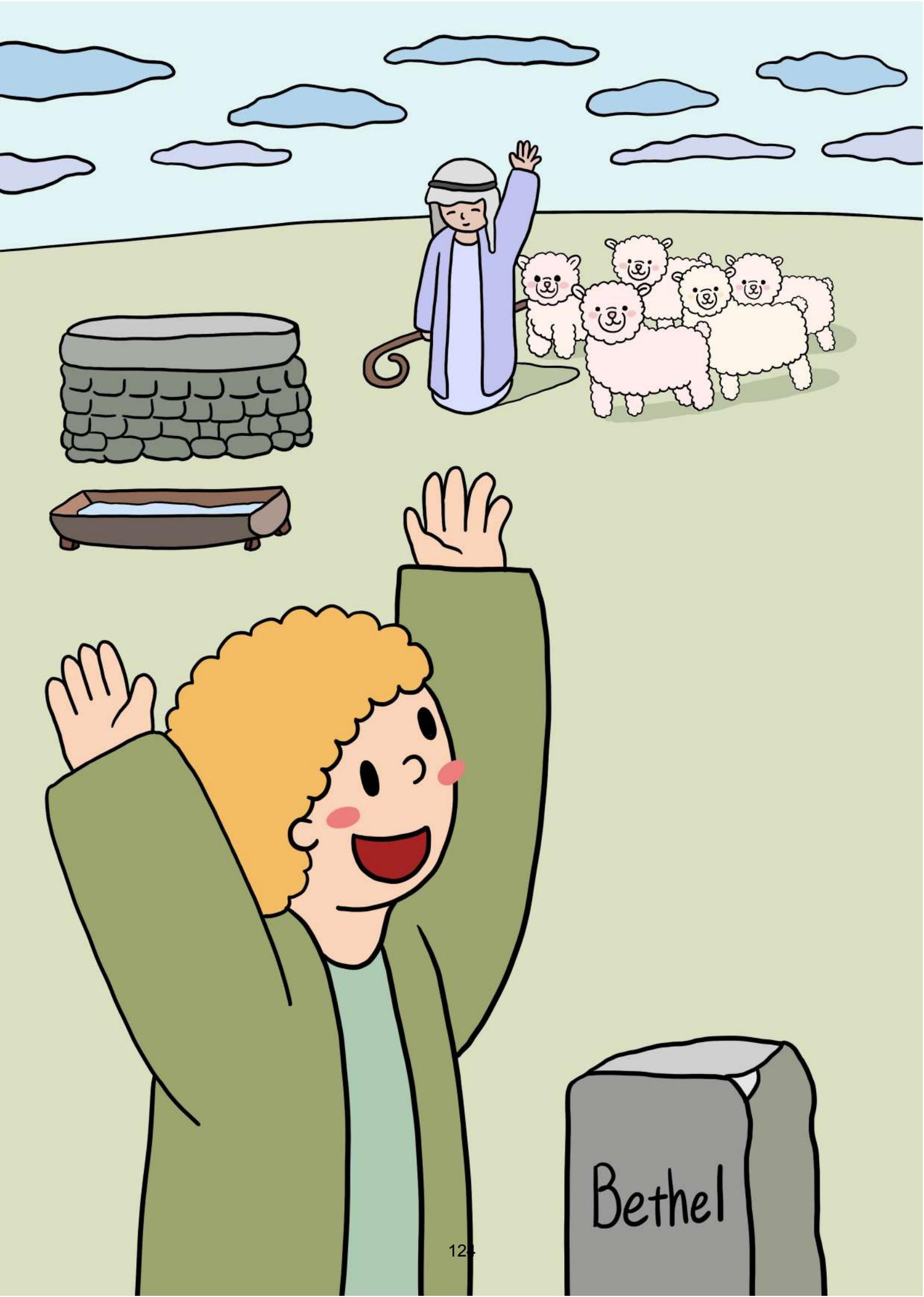
“그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세요?”

“그럼요, 알죠.”

“그가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저기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럼 당신들은 양에게 물을 먹인 후 풀밭으로 몰고 가서 풀을 먹이세요.”



Bethel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양들이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길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을 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도착했어요.

야곱이 얼른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들에게 물
을 먹였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소리 내
어 울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라반이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와서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외삼촌! 저 야곱이에요.”

“야곱! 잘 왔어. 먼 길에 고생 많았지? 정말 반가워.”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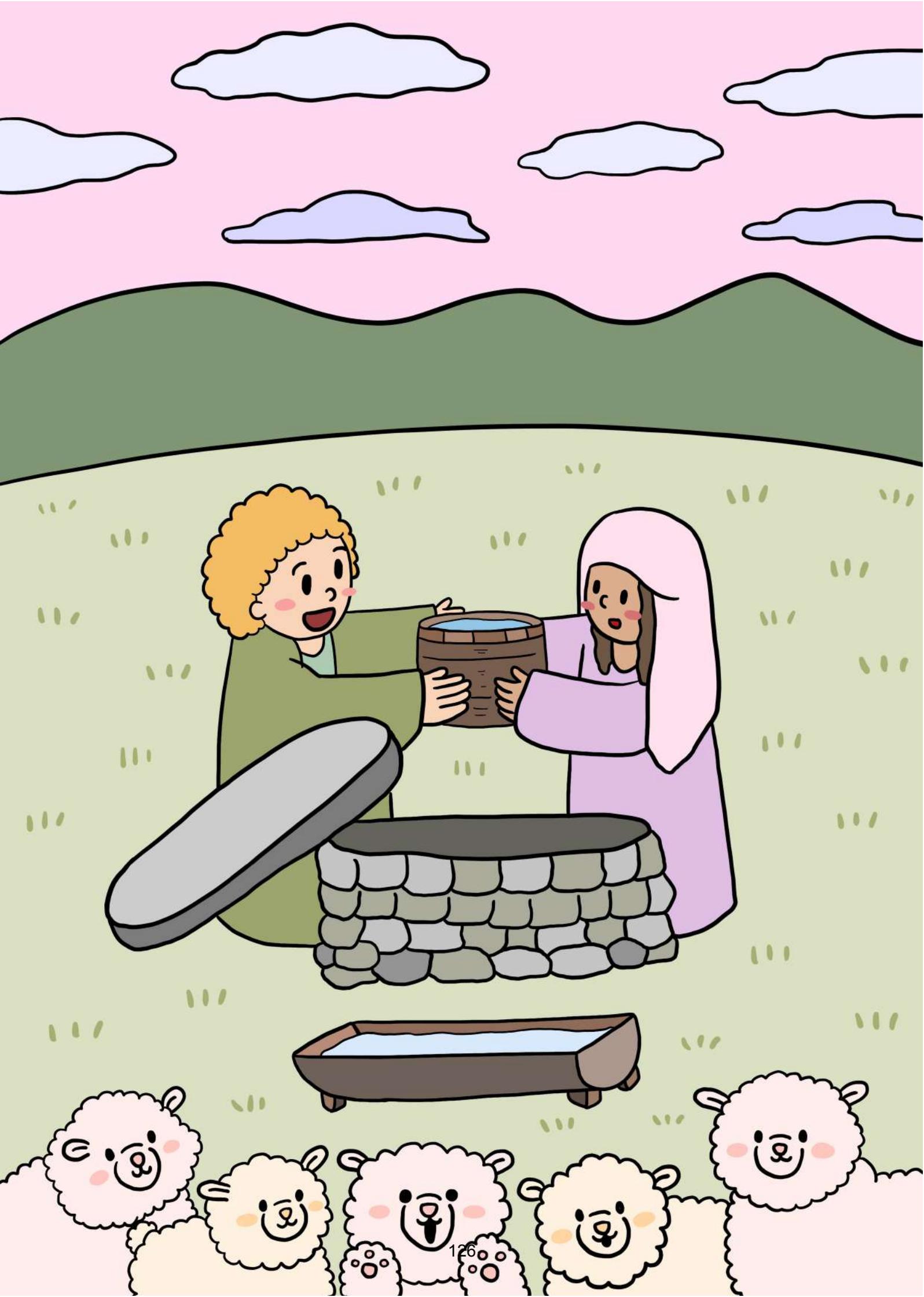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라반이 말했어요.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내 진정한 친척이로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함께 양도 치고 집안일
을 도우며 살았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
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려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
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
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16-19)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비록 축복은 받았지만 집을 떠나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에 안쓰럽긴 했어.

혼자 외삼촌 집을 찾아 떠나는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렸을까? 에서가 쫓아와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불쌍하게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에게 내가 나타났던 거야.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은 어딜 가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기도 했어.

너희들도 내가 선택한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머니가 흥얼흥얼 부르시던 찬송이에요.

야곱이 꿈에 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하나님!

지금 제게도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놈!” 그러셔도 좋고 “사랑하는 ○○야!” 그러셔도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17.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안에 거하다 (창세기 30:25~32:32)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외삼촌! 이제는 그만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일하고 얻은 아내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더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나까지 그 복을 받게 된 것 잘 알아. 하지만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네 품삯을 정하면 원하는 대로 줄게.”

“외삼촌! 원래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이후로 가축이 완전 많아져서 떼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나도 내 집을 갖고 싶어요.”

“응 응. 잘 알고 있어. 그럼 무엇으로 품삯을 계산해 줄까?”

“외삼촌은 나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다시 일할게요.”

“그래, 좋아. 그게 뭔지? 어서 말해 봐.”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를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얼룩덜룩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검은 양을 가려낼 거예요. 그게 내 품삯이 될 거예요.”

“알겠어.”

“나중에 외삼촌이 오셔서 확인하세요. 내가 양과 염소 중 얼룩덜룩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이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건 외삼촌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좋아. 그럼 네 말대로 하도록 해.”

그날 라반은 야곱이 말한 대로 양과 염소를 다 가려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축들과 야곱의 가축들을 사흘 길을 가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뜨려놓았어요.
야곱은 남아있는 라반의 양떼와 염소를 치게 되었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를
꺾어 다가 흰 무늬가 생기도록 가지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 가지를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에 세워서 양떼들이
볼 수 있게 했어요. 양들이 그 가지를 보며 물을 먹고 새끼를
뱉어요.
그랬더니 얼룩덜룩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어요.

“넌 건강한 양이구나. 이 가지를 세워둘 테니 이 옆에서 새끼를
배렴!”

허약한 양이 새끼를 뱉 때에는 그 가지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자 야곱이 금방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하인들과 수많은 양, 낙타, 나귀들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무래도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 부자 된 거 같아.”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 태도가 변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는 당신들도 잘 알 것이요. 당신들 아버지는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꿨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야곱!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잘 대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와 그의 말을 내게 전했어요. ‘나는 베엘에서 너에게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떠났어요.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3일쯤 후에 라반은 야곱이 떠난 줄 알고 친척들과 함께 7일 동안 쫓아가 노발대발했어요.

“야곱! 어째서 이렇게 몰래 떠났어? 나에게 말했으면 잔치를 베풀고 기분 좋게 보내줬을 텐데. 왜 내 딸들과 손자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도망간 거야?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너를 살려두는 거야.”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했어요.

“내가 내 딸들과 손주들에게, 내 양떼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증거할 만한 표를 만들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고 라반의 친척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쌓아 무더기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어요.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 맞추며 축복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창세기 31:16)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지키기 위해 야곱이 부자가 되게 했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모두 야곱의 것이 되게 했거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빨리 떠나기는 해야 했어. 왜냐하면 라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헬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숭배하고 있는 가정 신을 훔쳤어. 집안에 이방신을 갖고 길을 떠났던 거지.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어. 야곱이 그 가정 신을 버리라고 명령했을 때 비로소 야곱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었지.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경배해야 돼!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네요.
야곱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 최초로 재테크에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전학자였을까요? 얼룩이에게서 얼룩이가 태어난다는 법칙!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구약 1